

## 4» 국제캠 총학생회장 연임



## 8» 열리지 않는 전학대회



## 2016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수강신청기간 : 2016.12.14(수) 10:30 ~ 12.15(목) 17:00  
등록금 납부기간 : 2016.12.16(금) ~ 12.20(화) 16:00  
등록방법 : 본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계절학기 등록금 안내] 참조



# “박근혜 퇴진·성역없는 수사 촉구”

## 양캠 공동 시국선언문 발표

김수진 기자 sujin\_kim14@khu.ac.kr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캠 퍼스(서울캠)는 정문에서, 국제캠 퍼스(국제캠)는 중앙도서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캠퍼스가 모두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현 정권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이후 두 번째다.  
지난달 25일 jtbc는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도하며 ‘최순실 게이트’라는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유례없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에 각종 의혹들이 추가로 쏟아져 나오는 등 파문이 거세지자, 주요 대학을 시작으로 전국 100여 개가 넘는 대학에서 시국선언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우리학교 또한 사태의 공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학생들의 연대서명, 시국선언을 시행하며 동참했다. 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대통령이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국제캠 총학은 지난달 26일 질문지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한 후, 28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립해 이번 사태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격려하는 입장표명문을 밝혔다.

## 양캠 공동 시국선언문 발표 국제캠 늦은 공지는 아쉬워

본격적인 시국선언에 앞서 양 캠퍼스 총학은 시국선언에 동참할 학내 개인 또는 단체 연명을 함께 받았다. 서울캠 총학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연명을 받았으며, 28일 정문에서 시국선언 참가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캠 총학도 공식 페이스북에서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캠과 동일한 연명을 받았다. 그러나 국제캠 총학은 지난달 31일 김병경(체육학 2009) 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시국선언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공식 비대위를 조직했다. 조중연(산업경영공학 2011) 비대위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을 통해 사태 해결 촉구에 더 많은 학생과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1일 마감된 연명은 총 44개 단체와 1,809명이 참여로 마무리되며 많은 학내 구성원들의 목

소리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1일 서울캠 총학은 정문에서, 국제캠 총학은 중앙도서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양 캠퍼스 총학은 공동 시국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경희의 이름으로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퇴진과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캠 시국선언에 자유발언자로 나선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진해 교수는 “여러분들은 역사의 격동한 가운데 있다. 풍랑 속에서는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강병규(행정학 2016) 군은 “더 이상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않겠다. 부모님과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딸과 후배가 되자”고 발언했다.  
**교수·학생 자유발언**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  
학생과 교직원의 자유발언 이후에는 약 600명(경찰추산 400명)의 인원이 정문을 출발해 청량리 광장까지 약 2km 구간을 30여 분 간 행진했다. 행사 이후 서울캠 총학 정주희(사학 2012) 회장은 “피켓을 400장 준비했는데 그 이상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박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계속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국제캠에서 진행된 시국선언에 자유발언자로 나선 고수빈(컴퓨터공학 2016) 양은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권력과 부가 아니다”며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또 다른 자유발언자 허지윤(연극영화학 2015) 양은 “대통령의 무능력함이 곧 국민의 무능력함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무능력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라고 말했다. 비대위 이유진(국제학 2015) 부위원장은 “진정한 애국이란 대통령이나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 ‘국가’를 지지하는 것”이라며 “특정 정권, 정부가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 함께 행동하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제캠 총학 김병경(체육학 2009) 회장을 향해 “총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의 중요성을 가버려 여간 것이 아니냐”며 시국선언을 앞두고 회장직을 사퇴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또한 자유발언자로 나선 이현지(스페인어학 2016) 양은 지난 달 28일 비대위가 SNS를 통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36명의 비대위 구성원 중 시국 선언에 절반도 채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이번 사태와 운동에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 Newsmaker

팟캐스트 ‘책이랑 토크’ DJ  
김세욱(연극영화학 2011)



##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DJ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 독서토론 팟캐스트 ‘책이랑 토크’은 책 한권을 읽고 다양한 주제를 토론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DJ들의 말을 듣고 있다면 2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이들의 방송은 청취자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애청자를 늘려가고 있다. 6명의 DJ 중 ‘고래’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욱(연극영화학 2011) 군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군은 어릴 적 라디오를 즐겨 듣는 ‘라디오 키드’였다. 고민거리가 있을 때에는 라디오에 사연을 제보했다. 김 군은 “라디오 진행자 내 사연을 읽으면 굳이 많은 조언을 해주지 않더라도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고 위로가 됐었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민거리가 공유되는 데서 안정감을 느꼈다. 결국 사람들에게 고민거리를 말하고 들으며 ‘소통’하는 일은 그가 하고 싶은 일이 됐다.  
라디오 DJ가 될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주로 연예인이나 아나운서들이 라디오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라디오 DJ가 아니라도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공유할 수 있는 ‘팟캐스트’에서 청취자들과 소통하기로 했다. 지난 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김 군은 친구 3명과 모여 단기적으로 고민상담 팟캐스트를 진행하다 학기가 시작되고 그만두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인터넷 카페에서 ‘책이랑 토크’의 새로운 DJ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김 군은 “팟캐스트와 독서토론 모두 흥미가 있던 분야라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책이랑 토크’를 5개월간 진행하며 ‘채식주의자’와 같은 소설에서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같은 정치·사회분야 저작까지 다방면의 책을 소화하며 생각의 깊이도 깊어졌다. 또한 꾸준히 책을 읽고 그에 관한 생각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나날이 성장해가는 기분도 느끼게 됐다. 김 군은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토론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책이랑 토크’를 통해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진지한 주제이지만 무겁지 않게 유쾌하게 풀어나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팟캐스트를 통해 많은 것을 얻고 배우고 있지만, 아직은 학생 신분이라 학업과 방송을 병행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김 군은 “시험 기간에 700쪽 정도 분량의 책을 500페이지까지만 읽고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다”며 “방송을 완벽히 못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주변 친구들과 청취자들의 반응은 그에게 원동력이 된다. 김 군은 “친구들이 방송에 대해 이야기 해주거나 방송에서 추천해준 책을 읽었다고 말할 때 뿌듯하다”며 “청취자 분들도 정성스럽게 감상평과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면 큰 힘이 된다”라고 말했다.  
고민상담부터 독서토론 팟캐스트까지 진행하며 이루고 싶은 목표도 생겼다. 김군은 “어렸을 적 라디오에 보냈던 사연을 읽어줬던 DJ처럼 나도 팟캐스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이나 행복을 전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군은 “사람들을 힐링해 줄 수 있는 시를 소개하는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과 행복을 주고 싶다는 그의 소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 알림

##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 전문가 칼럼

## 대학이 나서야 독도를 지킨다

고창근(독도아카데미 집행위원장) >> 7면

